

중국 퍼스트레이디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이 초 · 하승연⁺*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석사 ·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부교수⁺*

Fashion Image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rst Lady, Peng Liyuan

Chao Li · Seung Yeon Ha⁺*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6. 8. 3 접수; 2016. 10. 21 수정; 2016. 10. 24 채택)

Abstract

This study would inquire into the fashion image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Peng Liyuan, the first lady of China that has a mighty influence on the recent global economy and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shion image of Peng Liyuan according to the role which she performs as a first lady and analyzed how the fashion image appears and changes by year and role type.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Peng Liyuan's fashion image, focusing on the silhouette, fashion items, coordinated items, colors, and textile patterns.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the dresses worn by Peng Liyuan from March 14, 2013 to September 30, 2015.

The fashion image of Peng Liyuan changed from classic and elegant image to modern image till 2015, and she reduced ethnic image and emphasized romantic image. In international diplomatic visits, she tried to express the confidence and potential of China through classic, ethnic and modern image, while in formal events of China, she showed an intention to communicate with the Chinese public with soft intimacy through elegant and ethnic images. As design characteristics in her fashion image, she flexibly changed her fashion image by the composition of silhouettes and items, which could cover her mid-life body type and made use of the form and detail of Chinese traditional qipao, appropriate coordination of scarves and brooches, the combination of chromatic color and achromatic color, appropriate uses of textile patterns and the delivery of China's image according to place and purpose.

The study of Peng Liyuan's fashion image has significance to understand the fashion trend as a role model of fashion for the Chinese people and can help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that aims at the Chinese market in the future by predicting Chinese women' Fashion trend.

Key Words: Peng Liyuan(평리위안), First lady(퍼스트레이디), Fashion image(패션이미지), Design characteristics(디자인특성)

Corresponding author ; Seung Yeon Ha
Tel. +82-41-850-0291, Fax. +82-41-850-8301
E-mail : hsywings@kongju.ac.kr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여성 지도자들의 패션경향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은 시대의 패션 아이콘으로서 패션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상운진, 이인성, 2014).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彭麗媛)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함께 외국 방문길에 오를 때 착용한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 중국인들의 열렬한 관심은 물론 국내외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다. 펑리위안의 강력한 전시 효과로 인해 중국의 자국 브랜드가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국 우수 브랜드의 소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펑리위안은 자국의 패션 브랜드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중국의 품격을 자랑하고, 중국 패션을 국제무대로 리드하였으며, 그녀의 품위 있는 패션은 2013년 세계 베스트 드레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내의 퍼스트레이디 관련 논문으로는 퍼스트레이디 시절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에 관한 연구(정혜정, 2007),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생애와 미셀 효과에 관한 연구(이민정, 2008), 현대 퍼스트레이디 룩의 형성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이영재, 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한지은, 정성혜, 2011) 등이 있다. 한편 정신주(2013)는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와 프랑스 퍼스트레이디인 카를라 브루니의 헤어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미숙(2013)은 재클린 케네디와 미셸 오바마의 패션 스타일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퍼스트레이디 패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북미 또는 유럽 국가의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스타일을 연구하는데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동양사회의 발전과 세계적 위치 향상에 따라 몇몇 소수의 연구들에서 동양사회의 퍼스트레이디들의 패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우크라이나의 수상 올리아 티모셴코의 패션 스타일 연구(양숙희, 조윤영, 2011),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과 헤어스

타일 연구(윤나리 외, 2013),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연구(양미경, 곽태기, 2014), 한국 영부인의 역할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 연구(김영삼 외, 2012)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동양사회의 퍼스트레이디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관점에서 더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들어서 세계의 경제와 소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 및 스타일링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었다. 장문과 이미숙(2014)은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패션정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패션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펑리위안의 패션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현대 패션산업에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의 패션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펑리위안의 패션이미지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퍼스트레이디로서 수행하는 역할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펑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루엣, 착장아이템, 코디아이템 등의 형태적 특성과 색채 특성, 그리고 문양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의 패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중국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뿐만 아니라 중국 패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중국 패션업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유형에 따라 표현되는 패션이미지를 통해 유형 정보를 구축하고, 여성 정치인 및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패션이미지 표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아울러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여성

들의 패션 트렌드를 미래 예측하고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내 패션산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 수상 또는 국가 최고 실권자의 부인을 의미한다(Manheim, 1994). 이러한 퍼스트레이디는 남편인 대통령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로서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지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의 입지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퍼스트레이디 외교란 국가의 외교 활동에서 발휘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퍼스트레이디가 국가외교에서 절대적 역할은 발휘한 것은 미국 전 대통령 플랭클린 D. 루스벨트의(Franklin Delano Roosevelt)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Anna Eleanor Roosevelt)부터 시작했다. 루스벨트의 행동이 불편함으로써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남편을 대신하여 해외 방문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미국의 외교 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다(Antony, 2000). 그 이후 퍼스트레이디들은 외교 영역에서 그 역할이 점차 커졌다. 이런 퍼스트레이디의 외교 방문은 주로 세계 공동이익의 추구하고 글로벌 생존에 대한 문제, 즉 소외계층과 굶주림, 빈곤, 전쟁, 질병, 건강, 환경보호 등 공익성 문제에 대해서 회담하고 활동을 진행한다. 김미경(2012)의 연구에 의하면, 외교 무대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일거일동이 국가 외교 정책의 일부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퍼스트레이디가 보다 많은 글로벌 공익사업에 종사하면 그 나라가 국제 공익사업을 주목하고 지지함을 뜻하며, 나라의 국제적 명예와 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퍼스트레이디는 경제, 역사, 외교, 문화 등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대한 기준은 관례적 역할,

정치적 역할, 정책적 역할이다. 관례적 역할이란 퍼스트레이디가 전통적 여성상에 충실하면서 백악관의 안주인으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의미하며, 정치적 역할이란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과 자문을 하며 정치적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책적 역할이란 퍼스트레이디가 내각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O'Conner et al, 1996). 이외에 한지은과 정성혜(2011)는 미셸 오바마의 역할을 취임 전 선거운동, 외교사절, 자국의 공식행사로 분류하였고, 박재영과 윤영민(2008)은 그의 연구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의전적 영부인, 대통령 의존형, 소극적 안주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영삼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역할, 정치적 역할, 전통적 상담자, 정치적 상담자로 분류하였다.

2. 패션이미지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사람들 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패션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즉 패션이미지란 의복이라는 시각적 자극물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며, 이러한 패션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외모에 뚜렷한 분위기 또는 의미 있는 특징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이미지는 패션의 스타일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진다.

최근 10여 년간 출간된 패션이미지에 관한 저서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0년대 초반에는 패션이미지가 매우 세분화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2008년 이후의 저자들은 유사한 패션이미지를 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미지들로 분류가 단순해졌다. 주로 나타나는 패션이미지는 클래식(classic), 엘레강스(elegance), 페미닌(feminine), 로맨틱(romantic), 모던(modern), 스포츠(sports), 스포티브(sportive), 에스닉(ethnic), 엑조틱(exotic), 내추럴(natural), 캐주얼(casual), 매니쉬(mannish)가 있으며, 이 외에도 아방가르드(avantgarde), 댄디(danddy), 고저스(gorgeous), 럭셔리(luxury), 시크(chic), 컨트리(country), 다이내믹(dynamic) 등이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 1〉 문헌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 저자명 (연도) | 패션이미지 |
|----------------|---|
| 오경화 외(2011) | 클래식, 모던/소피스티케이티드, 엘레강스, 로맨틱, 액조틱 스포츠, 아방가르드 |
| 김보배(2010) | 클래식, 로맨틱, 스포티, 내추럴, 크리에이티브, 드라마틱 |
| 장성은, 이종숙(2009) | 클래식, 모던, 페미닌, 스포티브, 럭셔리, 매니시 |
| 박길순 외(2009) | 트래디셔널, 엘레강스, 로맨틱, 스포티브, 섹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틱 |
| 권수애 외(2008)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페미닌), 에스닉, 액티브, 아방가르드 매니시 |
| 조오순 외(2008)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액티브, 내추럴, 캐주얼 포클로어, 매니시, 밀리터리, 아방가르드, 트래디셔널 |
| 박숙현(2007)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캐주얼, 아방가르드, 섹시, 빈티지 |
| 안명숙, 장애란(2002)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페미닌), 로맨틱, 내추럴, 스포츠 캐주얼, 댄디, 뉴웨이브 |
| 이성옥 외(2002)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페미닌), 로맨틱, 에스닉, 스포티(액티브) 컨추리, 매니시, 노스텔지어, 컨저버티브, 컨템포러리 트래디셔널, 아방가르드, 소피스티케이티드 |
| 신상옥 외(2002)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내추럴, 고저스, 프리티, 캐주얼, 시크, 클리어&쿨, 캐주얼, 댄디, 다이내믹 |
| 정삼호 외(2000) |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액티브, 내추럴, 매니시, 아방가르드, 사이버-테크노 |
| 김은애 외(2001)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액조틱, 스포티, 캐주얼, 매니시 댄디, 다이내믹 |
| 이해영(2000)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액티브, 캐주얼, 내추럴, 컨추리, 프리미티브, 매니시 |
| 이인자, 신효정(2000) |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내추럴, 매니시, 댄디, 시크, 프리티, 고저스, 다이내믹 |

패션이미지는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모던, 스포츠, 에스닉, 내추럴, 매니시, 아방가르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 이후로 스포츠 또는 스포티브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위 문헌에서 살펴본 패션이미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적인 패션이미지들은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모던, 스포티브, 에스닉 순이었다. 클래식은 일류의, 기본적인, 모범적인, 표준적인, 유명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뜻하며, 유행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유행으로 남아 있는 스타일을 나타낸다(그림 1). 엘레강스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고귀한 이미지로서, 자연스러운 품위와 우아함이 있는 세련된 스타일로 성숙한 여성의 패션스타일을 의미한다(그림 2). 로맨틱이란 공상적,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꿈을 쫓는 듯한 분위기로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소녀적인 느낌의 스타일

을 뜻한다(그림 3). 모던은 근대적, 현대적이라는 의미로서 도회적 감성과 미래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취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 주로 직선이나 단순한 곡선 등을 이용한 심플한 디자인이 많다(그림 4). 스포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스포츠적인, 경쾌한 등으로 해석되며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과 편안함을 패션에 적용시킨 활동적인 스타일로서 때로는 캐주얼웨어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몸에 붙지 않고 건강미 넘치는 내추럴 스타일 혹은 사이즈가 여유 있는 디자인이나 지퍼가 달려 캐주얼한 느낌을 풍기는 스타일이 포함된다(그림 5). 에스닉은 민간전승, 민속, 민속학, 인류학의 뜻을 가지며, 각 나라별 전해오는 민속 의상 또는 민속복에 나타난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한 스타일을 의미한다(그림 6).



〈그림 1〉 클래식 이미지
(출처: Jang and Lee, (2009), p.161)



〈그림 2〉 엘레강스 이미지
(출처: Park, (2009), p.153)



〈그림 3〉 로맨틱 이미지
(출처: Oh et al, (2011), p.107)



〈그림 4〉 모던 이미지
(출처: <http://allcontemporist.blogspot.kr>)



〈그림 5〉 스포티브 이미지
(출처: <http://make-your-style.fr>)



〈그림 6〉 에스닉 이미지
(출처: Cho et al, (2008), pp.293-29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범위는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평리위안이 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2013년 3월 14일부터 2015년 9월까지 평리위안이 착용한 의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사진 중에서 패션 분석이 불가능한 사진과 동일한 의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 착장 분석에 적합한 82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류상품학과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8인이 사전 자료분석을 하였다.

사전 자료분석을 위한 순서로는, 먼저 평리위안의 패션 이미지 분석에 사용된 대표적 6개 패션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의와 대표사례를 각각 제시한 후,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의 종류를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4명의 과반수이상이 동일한 패션이미지로 선택한 55장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82장의 사진 중 55장이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 분석을 위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은 국외 외교방문, 국내 국가행사, 국내 봉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패션이미지의 유형은 최근 10여 년간 패션이미지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6가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문헌에서 저자마다 사용한 패션이미지 어휘의 용어가 상이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들은 하나로 통일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엘레강스와 페미닌은 '엘레강스'로, 에스닉과 엑조틱은 '에스닉'으로,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티브, 액티브를 '스포츠티브'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14편의 저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모던, 스포츠, 에스닉의 6가지 패션이미지를 선정하였다.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나는 디자인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형태, 색채,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형태는 실루엣, 착장아이템, 코디아이템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실루엣은 한지은과 정성혜(2015), 상윤진과 이인성(201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H 라인, A 라인, O 라인으로 분류하였다. 착장 아이템은 한지은과 정성혜(2015), 상윤진과 이인성(2014), 장문과 이미숙(2014), 윤나리외(2013)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원피스, 원피스+재킷, 원피스+코트, 재킷+스커트, 재킷+바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자들이 액세서리로 분류한 항목을 코디아이템으로 정의하고, 가방과 신발을 제외한 스카프, 브로치, 벨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색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셀의 10색상인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과 무채색인 White, Black, Grey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유채색 분류 시에 톤이 다양한 유채색의 경우는 혼합 이전의 기본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서 Beige의 경우는 YR로, Pink의 경우는 R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문(2015)과 장문과 이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평리위안과 미셸 오바마의 패션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 배색은 대부분 단색 혹은 2색 배색이기 때문에 주조색과 보조색으로만 분류하였다. 셋째, 문양적 특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수집한 사진자료는 정확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소재보다는 문양에 집중하였으며, 문양마저도 정

확한 식별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장문(2015)과 장문과 이미숙(201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유문과 무문으로 분류하고, 유문은 다시 자연문, 기하문, 전통문, 추상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

1) 평리위안의 연도별 패션이미지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클래식, 엘레강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보여졌고, 그 다음으로 에스닉, 모던, 로맨틱, 스포티브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리위안이 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첫 해인 2013년도에는 클래식, 엘레강스, 에스닉, 모던, 로맨틱, 스포티브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이미지가 40점(29.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엘레강스 이미지가 35점(25.74%), 에스닉 이미지 34점(25%), 모던 이미지 16점(11.76%), 로맨틱 이미지 7점(5.14%), 그리고 스포티브 이미지가 4점(2.94%)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리위안이 2013년에 처음 퍼스트레이디가 된 후 그녀의 이미지를 고전적이고 정직한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여성이 가진 부드러운 힘을 패션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국가의 대외적으로 중국적 이미지를 많이 어필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에는 엘레강스, 클래식과 에스닉, 모던, 로맨틱, 스포티브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엘레강스 이미지가 54점(24.11%), 클래식 이미지와 에스닉 이미지가 각각 49점(21.88%), 모던 이미지가 46점(20.54%), 로맨틱 이미지가 18점(8.04%), 스포티브 이미지가 8점(3.57%)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평리위안의 이미지가 다소 딱딱하고 전형적인 이미지로 보여진 반면에, 2014년에는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중국의 딱딱한 이미지를 평리위안의 패션을 통해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부각하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2015년도에는 모던, 클래식, 엘레강스, 로맨틱,

에스닉, 스포티브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던 이미지가 21점(26.25%), 엘레강스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가 각각 15점(18.75%), 에스닉 이미지가 13점(16.25%), 그리고 스포티브 이미지가 1점(1.25%)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모던한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신(新) 중국’이라는 새로운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평리위안의 패션으로 보여주고자 함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실루엣과 색상 톤의 변화된 연출로 인해 모던한 이미지와 함께 로맨틱한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됨을 발견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좀 더 실루엣이 편안해

지고 착장 아이템도 다양해짐으로써 평리위안의 개인적인 매력을 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더욱 다양해지고 큰 가능성을 지닌 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평리위안의 패션도 변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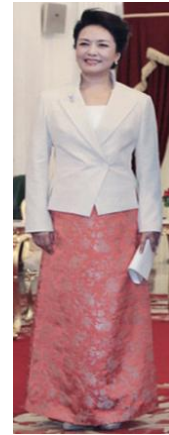
<그림 7>은 2013년 3월 22일에 러시아를 방문한 사진이다. 평리위안은 전형적인 트렌치코트에 스카프를 코디함으로써 클래식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8>은 201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모습이다. 이 사진에서 평리위안은, 광택 있는 직물에 비즈 장식이 되어있



<그림 7> 클래식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8> 엘레강스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9> 에스닉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0> 모던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1> 로맨틱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2> 스포티브 이미지
(출처: <http://google.co.kr>)

〈표 2〉 평리위안의 연도별 패션이미지

| 연도 \ 유형 | 클래식 | 엘레강스 | 로맨틱 | 모던 | 스포티브 | 에스닉 | 계 (%) |
|---------|------------|------------|-----------|-----------|----------|-----------|----------|
| 2013년 | 40(29.41) | 35(25.74) | 7(5.14) | 16(11.76) | 4(2.94) | 34(25) | 136(100) |
| 2014년 | 49(21.88) | 54(24.11) | 18(8.04) | 46(20.54) | 8(3.57) | 49(21.88) | 224(100) |
| 2015년 | 15(18.75) | 15(18.75) | 15(18.75) | 21(26.25) | 1(1.25) | 13(16.25) | 80(100) |
| Total | 104(23.64) | 104(23.64) | 40(9.09) | 83(18.86) | 13(2.95) | 96(21.82) | 440(100) |

으며 우아한 드레이프를 이루는 드레스에 올림 머리를 연출하여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림 9〉는 2013년 10월 2일 인도네시아 APEC 회담시 착용한 사진으로, 에스닉한 프린트가 된 길이가 긴 스커트를 깔끔한 재킷과 연출하였다. 〈그림 10〉은 2014년 7월 3일에 한국을 방문한 사진이다. 칼라가 없는 화이트 색상의 H 실루엣의 원피스와 블랙 코사지 브로치를 매치함으로써 모던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림 11〉도 201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모습이다. 이 사진에서 평리위안은 파스텔톤의 핑크빛 원피스와 스커트와 길이 많이 진 머리를 뒤로 높게 묶어 발랄한 느낌으로 로맨틱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2〉는 2015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사진으로, 폼핑리위안은 품이 여유 있는 박시한 셔츠와 팬츠로 스포티브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2) 평리위안의 역할별 패션이미지

평리위안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은 국외 방문외교의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국내 국가행사 참여와 사회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교역할 시에 클래식, 엘레강스, 에스닉, 모던, 로맨틱, 스포티브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클래식 이미지가 87점(26.52%), 엘레강스 이미지가 75점(28.76%), 에스닉 이미지가 74점(22.56%), 모던 이미지가 60점(18.29%), 로맨틱 이미지가 20점(6.10%), 스포티브, 이미지가 12점(3.66%)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와 교류하며 중국을 알리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클래식한 패션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예측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레강스와 에스닉이 중요한 이미

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리위안은 중국의 전통 복식의 디테일인 차이나 칼라 또는 치파오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의 원피스에 전체적으로 모던한 실루엣의 재킷을 코디함으로써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게 때로는 엘레강스하게 연출하였다. 한편 방문국의 전통 복식이나 디테일, 또는 미학적 특성이나 선호하는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방문하는 국가와 친화하려는 메시지를 패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리위안이 중국 내에서 개최하는 국가행사에 참석한 경우, 패션이미지는 엘레강스와 에스닉, 로맨틱, 모던, 클래식, 스포티브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엘레강스와 에스닉 이미지가 각각 18점(28.13%), 로맨틱 이미지가 12점(18.75%), 모던 이미지가 8점(12.5%), 클래식 이미지가 7점(10.94%), 스포티브 이미지가 1점(1.56%)로 나타났다. 평리위안이 퍼스트레이디로서 자국의 국가행사 참석 시에는 엘레강스 이미지와 에스닉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로맨틱 이미지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클래식 이미지는 낮았다.

외교 방문 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른 국가의 외교방문 시에는 클래식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추구한 반면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행사 참여시에는 엘레강스와 에스닉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자국민과 동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패션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평리위안은 퍼스트레이디로서 공익사업과 에이즈 홍보대사, 장애인우편 발표 행사 등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평리위안이 국내 사회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나타난 패



〈그림 13〉 스페인 방문
(출처: <http://upload.ct.youth.cn>)



〈그림 14〉 북경 APEC회의
(출처: <http://chianews.com>)



〈그림 15〉 HIV 홍보대사
(출처: <http://y3.ifengimg.com>)

〈표 3〉 평리위안의 퍼스트레이디 역할별 패션이미지

| 역할 | 유형 | | | | | | |
|---------|----------------|----------------|---------------|---------------|--------------|---------------|--------------|
| | 클래식 | 엘레강스 | 로맨틱 | 모던 | 스포티브 | 에스닉 | 빈도 (%) |
| 국내 국가행사 | 7 (10.94) | 18 (28.13) | 12 (18.75) | 8 (12.5) | 1 (1.56) | 18 (28.13) | 64 (100) |
| 국내 사회봉사 | 10 (20.83) | 11 (22.92) | 8 (16.67) | 15 (31.25) | - | 4 (8.33) | 48 (100) |
| 국외 방문외교 | 87 (26.52) | 75 (28.87) | 20 (6.10) | 60 (18.29) | 12 (3.66) | 74 (22.56) | 328 (100) |
| Total | 104 (23.64) | 104 (23.64) | 40 (9.09) | 83 (18.86) | 13 (2.95) | 96 (21.82) | 440 (100) |

션이미지는 모던, 엘레강스, 클래식, 로맨틱, 에스닉, 스포티브이미지의 순이었다. 즉 모던 이미지 15점(31.25%), 엘레강스 이미지 11점(22.92%), 클래식 이미지 10점(20.83%), 로맨틱 이미지 8점(16.67%), 에스닉 이미지 4점(8.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리위안의 퍼스트레이디 역할 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 분석은 〈표 3〉과 같다.

〈그림 13〉은 2013년 10월 02일 스페인을 방문한 모습으로,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원피스에 재킷을 코디하고 코사지 브로치를 코디함으로써 클래식하면서도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4〉는 평리위안이 2014년 11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참석 시의 모습으로 치파오 실루엣의 원피스에 자수문양이 에스닉한 패션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5〉는 평리위안이 2014년 10월 20일 HIV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 모습으로 클래식한 정

장에 비대칭적인 도련선이 모던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2.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 디자인 특성

1)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의 형태적 특성

실루엣은 A 라인이 전체 자료 중에서 32점(58.18%)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H 라인이 18점(32.73%), O 라인이 5점(9.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리위안은 A 라인 실루엣을 이용하여 주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H 라인을 통해 클래식하고 모던한 패션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평리위안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분석으로는 재킷+스커트의 형태가 16점(29.09%)을 나타내며 가장 많이 보여졌다. 다음 순으로 원피스, 원피스+코트가 각각 13점(23.64%)으로 나타

났으며, 원피스+재킷이 10점(18.18%), 재킷+바지가 3점(5.4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리위안은 패션이미지 연출을 위해 주로 스카프, 브로치, 벨트를 함께 연출하였다. 평리위안이 착용한 코디아이템 분석에서는 코디아이템이 없는 경우와 브로치가 각각 16점(29.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스카프가 14점(25.45%), 벨트가 5점(9.09%), 스카프+벨트가 3점(5.45%), 브로치+벨트가 1점(1.82%)로 나타났다. 중국 네티즌들이 평리위안의 패션을 ‘스카프 패션’이라 부를 만큼 패션이미지를 연출에 스카프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리위안이 여러 장소에서 소재와 컬러가 다른 스카프로 패션 코디네이션을 하여 패션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다. 평리위안의 스카프 연출은 색상이 과감하며, 융통성 있는 다양한 스타일 연출은 평리위안

을 더욱 우아하면서도 개성이 돋보이게 만들었다. 따라서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형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림 16>은 2013년 10월 23일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시의 스타일로 A 라인 실루엣의 사례이다. <그림 17>은 2013년 8월 16일 세르비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 착용한 투피스로 H 라인 실루엣이다. <그림 18>은 2015년 6월 23일에 벨기에 왕후가 북경의 해방군예술학교를 방문한 사진으로, 평리위안의 재킷의 외곽선과 소매의 형태가 O 라인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2013년 6월 4일 멕시코를 방문한 모습으로 재킷과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그림 20>은 2014년 9월 18일 인도 방문시의 스타일로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 <그림 21>은 2014년 3월 26일 프랑스 방문 시의 착용으로 원피스에 짧은 재



<그림 16> A라인실루엣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7> H라인실루엣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8> O라인실루엣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19> 재킷+스커트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0> 원피스착장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1> 재킷+원피스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2> 스카프코디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3> 브로치+벨트 코디
(출처: <http://google.co.kr>)

〈표 4〉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나는 형태적 디자인특성

| 내용 | 형태 특성 | | | | | 빈도(%) |
|-------|------------|------------|------------|------------|----------|------------|
| | H 라인 | A 라인 | | O 라인 | | |
| 실루엣 | 18 (32.73) | 32 (58.18) | | 5 (9.09) | | 55 (100) |
| 착장아이템 | 원피스 | 원피스+재킷 | 원피스+코트 | 재킷+스커트 | 재킷+팬츠 | 55 (100) |
| | 13 (23.64) | 10 (18.18) | 13 (23.64) | 16 (29.09) | 3 (5.45) | |
| 코디아이템 | 스카프 | 브로치 | 벨트 | 스카프+벨트 | 브로치+벨트 | 55 (100) |
| | 14 (25.45) | 16 (29.09) | 5(9.09) | 3 (5.45) | 1 (1.82) | |
| | | | | | 무 | 16 (29.09) |



〈그림 24〉 Red 계열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5〉 Yellow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6〉 Purple 계열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7〉 Blue
(출처: <http://google.co.kr>)

킷을 연출하였다. 〈그림 22〉는 2015년 4월 21일 스페인 국가연회에 참석한 모습으로, 엘레강스한 이미지의 투피스에 스카프를 연출하였다. 〈그림 23〉은 2014년 11월 26일 호주를 방문한 모습으로 클래식한 투피스 정장에 스카프와 벨트를 함께 연출하였다.

2)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의 색채적 특성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조색으로서 유채색은 B가 12점(2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YR과 PB가 각각 7점(12.73%), R과 Y가 각각 4점(7.27%), GY가 2점(3.64%), G와 BG가 각각 1점(1.82%)로 나타났다. 주조색으로서 무채색은 White가 8점(15.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Grey가 5점(9.09%), Black이 4점(7.27%)으로 나타났다. 평리위안은 외교 방문 시

에는 유채색을 많이 입어 친절함이 더 강하고 매력 있게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보조색으로는 유채색 중 YR이 4점(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색상이었고, 다음 순으로 R과 B가 각각 3점(7.5%), PB가 2점(5%), G가 1점(2.5%)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에서는 White가 18점(45%)으로 빈도수가 월등히 높은 보조색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lack이 6점(15%), Grey가 1점(2.5%)로 나타났다. 주조색으로는 유채색이, 그리고 보조색으로는 무채색이 월등하게 많이 보여졌다. 이렇듯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24〉는 2015년 9월 22일 미국 LA에 방문한 모습으로, White 재킷에 Red 계열의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이고, 〈그림 25〉는 2014년 09월 25일 미국 방문시의 모습으로, Yellow 재킷에 White 이너웨어를 코디하였다. 〈그림 26〉은 2014년 3월 22일 네덜란드 방문 시의 모습으로 Purple 계

열의 원피스에 스카프를 연출하였다. <그림 27>은 식물문양이 수놓아진 Blue 원피스로 에스닉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28>은 2013년 8월 16일의 파키스탄 방문시의 모습으로 Green 재킷과 스카프에 White 재킷을 연출함으로써 경쾌하고 스포티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29>는 2013년 6월 4일 멕시코 방문시의 모습으로 Black 투피스에 White 셔츠를 착용하여 모던하면서도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30>은 White 투피스 정장에 브로치를 이용하여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고, 기하학적인 도트문양으로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31>은 슬림한 H 실루엣의 Grey 코트로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3)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의 문양적 특성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문양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양이 없는 무문이 29점

(52.7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연문양이 11점(20%), 전통문양이 10점(18.18%), 기하문양이 5점(9.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리위안의 55장의 사진 중에서는 추상문양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평리위안이 평소에 무지문양의 착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교무대에서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각국의 외교 무대는 서로의 우호를 다지는 곳이자 엄숙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리위안이 외교 무대에서 무문인 아이템을 많이 착용하는 것은 T.P.O.를 잘 파악하고 분위기에 따라 패션을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 문양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중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문양이 있는 패션을 연출할 때에는 눈에 띄는 과감한 패턴을 활용하면서도 의상 전체 보다는 부분적으로 문양이 이용되거나, 하의



<그림 28> Green 계열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29> Black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30> White
(출처: <http://goog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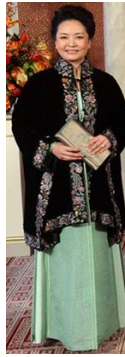
<그림 31> Grey
(출처: <http://google.co.kr>)

<표 5>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적 디자인특성

| | 유채색 | | | | | | | | | | 무채색 | | | 빈도 (%) |
|-----|-------------|---------------|-------------|-------------|-------------|-------------|---------------|--------------|-------------|-------------|---------------|-------------|---------------|-------------|
| | R | YR | Y | GY | G | BG | B | PB | P | RP | W | Gy | Bk | |
| 주조색 | 4 (7.27) | 7 (12.73) | 4 (7.27) | 1 (1.82) | 1 (1.82) | 1 (1.82) | 12 (21.82) | 7 (12.73) | 1 (1.82) | - | 8 (14.55) | 5 (9.09) | 4 (7.27) | 55 (100) |
| 보조색 | 3 (7.5) | 4 (10) | - | - | 1 (2.5) | - | 3 (7.5) | 2 (5) | - | 2 (5) | 18 (45) | 1 (2.5) | 6 (15) | 40 (100) |
| 합계 | 7 (7.37) | 11 (11.58) | 4 (4.21) | 2 (2.11) | 2 (2.11) | 1 (1.05) | 15 (15.79) | 9 (9.47) | - | 2 (2.11) | 26 (27.37) | 6 (6.32) | 10 (10.53) | 95 (100) |



〈그림 32〉 자연문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33〉 자연문
(출처: <http://google.co.kr>)



〈그림 34〉 기하문
(출처: <http://google.co.kr>)

〈표 6〉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문양적 디자인특성

| 문양 | 유문 | | | | 무문 | 빈도 (%) |
|----|-----------|----------|------------|------|------------|--------|
| | 자연문양 | 기하문양 | 전통문양 | 추상문양 | 무 | |
| | 11 (20.0) | 5 (9.10) | 10 (18.18) | - | 29 (52.72) | |

에 문양이 있으면 상의는 순백의 의상을 착용하는 형식으로 복잡함과 단순함을 조화시키었다. 만약 의상 전체에 문양이 있을 경우에는 무문의 외투를 곁에 착용하거나 커다란 솔을 걸침으로써 문양의 현란함과 복잡함을 중화시켰다. 이렇듯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그림 32〉는 2013년 3월 26일 프리토리아 방문시의 모습으로 연보라색 공단 위에 꽃문양이 화려하게 자수된 모습이다. 〈그림 33〉은 2014년 3월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을 방문한 모습으로 중국 전통복식의 디테일에 식물문양 트리밍이 장식된 재킷을 착용하였다. 〈그림 34〉는 2014년 11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 참석한 모습으로 원피스에 다양한 크기의 기하학적인 도트 문양이 프린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의 퍼스트레이디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

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와 소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평리위안의 패션 이미지와 그 디자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평리위안은 국가와 문화를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패션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녀의 패션은 중국 대중들의 패션을 대변하고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리위안은 전 세계 뉴스 매체를 통해 중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국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평리위안의 연도별 및 역할별 패션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을 실루엣, 착장아이템, 코디아이템을 포함하는 형태와 색채,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3월 14일부터 2015년 9월까지 평리위안이 착용한 의상으로 한정하였다.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연도별, 퍼스트레이디의 역할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리위안 패션이미지의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다가 2014년에는 엘레강스 이미지가 높

아졌고, 2015년에는 모던 이미지가 높아졌다. 즉 2013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클래식 보다는 모던 이미지가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모던 이미지와 로맨틱 이미지가 높아졌다. 에스닉 이미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013년보다는 2015년에 감소하였다. 이로써 2013년의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가 클래식과 엘레강스한 이미지에서 2015년으로 올수록 모던한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에스닉 이미지를 줄이고 로맨틱 이미지를 강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평리위안의 퍼스트레이디 역할별 패션이미지를 살펴보면, 방문외교 시에는 클래식, 에스닉, 모던의 순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발전을 바라고 중국의 자신감과 가능성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클래식한 심플함과 모던한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추측된다. 국가행사 시에는 엘레강스와 에스닉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봉사활동 참여시에는 모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가행사에는 엘레강스, 에스닉의 순으로 나타나 우아하고 중국적인 요소로서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 중국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보여졌다.

평리위안의 패션에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적 특성으로 실루엣은 H 라인, A 라인, O 라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리위안의 클래식하고 에스닉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실루엣으로 H 라인이 가장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착장아이템은 재킷+스커트 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원피스, 원피스+코트, 원피스+재킷 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밀착되는 재킷과 스커트 정장이 가장 클래식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코디아이템으로는 브로치, 스카프가 주로 나타났다. 때로는 스카프와 브로치가 함께 연출되기도 하였다. 평리위안은 단일 색상 또는 두 가지 색상의 배색에 있어서 브로치와 스카프가 강조색의 역할을 담당하며, 클래식과 모던한 이미지에 브로치를, 엘레강스한 이미지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패션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평리위안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여성복식 중 치파오의 H라인 실루엣과 스탠드칼라

또는 매듭단추 등의 디테일을 클래식이미지와 엘레강스, 에스닉 이미지 연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색채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조색으로는 무채색보다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다. 유채색 중에서는 Blue가 월등히 많이 보였으며, YR과 PB, R, Y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으로는 White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Grey, Black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보조색으로 유채색보다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White가 단연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Black이 사용되었다. 주조색은 주로 원피스나 재킷+스커트 구성에 동일한 색상으로 사용되었고, 보조색은 원피스+재킷 구성에서 재킷에 사용되거나, 스카프 또는 브로치 등의 코디아이템에 사용되었다. 평리위안은 그녀의 대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중국을 상징하는 Red 색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형적이고 공식적 패션에 무난한 색상인 Blue와 무채색으로써 현대적인 모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셋째, 문양적 특성으로는 문양이 없는 무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자연문양과 전통문양이 보여졌고, 때로는 기하문양이 나타났다. 평리위안의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또한 문양이 있는 패션을 연출할 때에는 눈에 띄는 과감한 패턴을 활용하는 동시에 문양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복잡함과 단순함을 조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평리위안은 중국 전통 문양을 패션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스닉 이미지를 연출하여 중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평리위안의 패션이미지는 융통성과 다변성으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겠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조합 그리고 스카프와 브로치 등의 패션소품의 적절한 매칭으로 장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평리위안의 착장에서 그녀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인의 열정을 평리위안의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통해 연결하고자 하는 듯하며, 평리위안의 당당한 패션이미지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선보이며 중국인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연구결과가 균형 잡힌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형태적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주관적인 감성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퍼스트레이디인 핑리위안의 연구들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의 방향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인들의 패션 롤 모델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 여성들의 트렌드를 예측하여 미래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내 패션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수애, 김은영, 김지영, 이은경, 최종명 (2008). *패션과 라이프*. 서울: 교학연구사.
- 김미경. (2012). 리더의 스타일에 표현된 패션폴리티क्स 현상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6(5), 88-106.
- 김보배. (2010).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서울: 경춘사.
- 김영삼, 김장현, 전여선 (2012). 한국 영부인의 역할 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9), 1000-1013.
- 김은애, 김혜경, 나영주, 신윤숙, 오경화, 유혜경, 전양진, 홍경희, 김은애 (2001).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파주: 교문사.
- 박길순, 손향미, 박수진, 윤소영 (2009). *패션 이미지 스타일링*. 대전: 궁미디어.
- 박숙현. (2007). *패션 이미지 메이킹*. 서울: 예학사.
- 박숙현, 이효숙. (2004).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과의 상관성. *한국패션뷰티학회*, 2(3), 44-59.
- 박재영, 윤영민. (2008). 한국의 영부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0, 71-108.
- 상운진 이인성. (2014) 로열 계층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335-348.
- 신상옥, 오경화, 이선희, 이춘희, 나영주 (2002). *현대패션과 의생활*. 서울: 교문사.
- 안명숙, 장애란. (2002). *현대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예학사.
- 양미경, 팍태기. (2014).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정치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1), 137-155.
- 양숙희, 조운영. (2011). 여성정치 리더의 역할 수행을 위한 패션 스타일 연구 -올리아 티모센코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9(1), 104-118.
- 오경화, 김정은, 구미지, 성연순, 김세나 (2011). *패션 이미지업*. 파주: 교문사.
- 윤나리, 임선희, 진용미 (2013).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 및 헤어스타일 분석. *한국미용예술학회지*, 7(1), 79-91.
- 이미숙. (2013).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퍼스트레이디 패션 스타일 비교연구 -재클린 케네디와 미셸 오바마를 중심으로-. *복식*, 63(8), 14-26.
- 이민정. (2008).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옥, 장미화, 김나희, 류지원 (2002). *이미지메이킹*. 파주: 교문사.
- 이영재. (2011). 현대 퍼스트 레이디 룩의 형성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재키 스타일의 투피슬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7(2), 467-479.
- 이인자, 신호정. (2000). *패션코드*. 서울: 시공사.
- 이창신. (2014).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의 생애와 "미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30, 291-323.
- 이혜영. (2000). *이미지메이킹*. 파주: 교문사.
- 장문. (2015). *중국과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스타일 연구 -핑리위안과 미셸 오바마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문, 이미숙. (2014). 퍼스트레이디 핑리위안의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패션정치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4), 591-604.
- 장성은, 이종숙. (2009).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토탈 패션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 경춘사.
- 정삼호, 이은지, 문순정. (2000). *패션 셀프 스타일링: Woman's Wear*. 파주: 교문사.
- 정선주. (2013). 퍼스트레이디 룩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셸오바마, 카를라 브루니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

- 화학회*, 18(3), 477-488.
- 정영순. (2009). *미셸 오바마처럼 사랑하고 성공하라*. 서울: 가림출판사.
- 정혜정. (2007). 퍼스트레이디 시절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 연구. *한복문화학회*, 10(1), 27-42.
- 조오순, 남윤숙, 박혜원, 오인영, 박은정 (2008). *함께 알아보는 패션 그리고 뷰티 이야기*. 서울: 경춘사.
- 한지은, 정성혜. (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 -패션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1(1), 89-102.
- 한지은, 정성혜. (2015). 여성 정치 리더의 특성과 패션이미지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7(3), 319-321.
- Anthony, Carl Sferrazza. (2000). *America's First Families: an inside view of 200 years of private life in the White House*. New York: Touchstone.
- Anthony, Carl Sferrazza. (1990). *First Ladies: The Saga of the President's Wives and Their Power, 1789-1961*.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Batts, K. (2011). *Every Icon*. New York: Clarkson Potter.
- Carl Sferrazza Anthony. (1990). *First Ladies: The Saga of the President's Wives and Their Power(1789 - 1961)*. William Morrow & Co., p.
- Ngrid D'Hooghe. (2005). *Public Diplomac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arol B. Manheim (1994). *Strategic Public Diplomac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Evolution of Influ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122.
- O'Conner, K, Nye, B., & Van Assendelt, L. (1996). Wives in the white house: The political influence of first ladie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6(3), 835-853.